

3.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체질검사 실시에서 탈피하여 체질검사는 양호교사가 전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 교육, 재정적 뒷받침이 적극 선행되어야겠다.

4. 양호교사가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 주당 보건교육 수업시간이 행정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하겠다. 현재 각 과목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보건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겠다.

5. 일차보건의료 개념을 학교보건에 도입하여 양호교사로 하여금 학교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것이 학교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행정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위한 양호교사 직무 규정이 새로이 설정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정책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하겠다.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7

전 명 희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속해있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1학년 학생의 상태불안점수는 3학년 학생의 상태불안점수보다 낮을 것이다.
- 2) 1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는 3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보다 낮을 것이다.
- 3) 상태불안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진단점수는 높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과 인천에 소재하는 4개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38명과 3학년 여학생 239명으로 총 477명을 대상으로 1987년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Spielberger의 상태불안척도와 김 등과 원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χ^2 -test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가설 : “1학년 학생의 상태불안점수는 3학년 학생의 상태불안점수보다 낮을 것이다.”는 유의한 수준으로 지지되었다. ($t = -2.95$, $\% .005$)
2. 제2가설 : “1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는 3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보다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 = -2.056$, $\% .05$)
3. 제3가설 : “상태불안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진단점수는 높을 것이다.”는 유의한 수준으로 지지되었다. ($r = 0.6184$, $p = .000$)
4. 일반적 특성이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적 건강상태 ($F = 3.081$, $\% .05$)와 부모에 대한 태도 ($F = 8.911$, $\% .001$)이고,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신체적 건강상태 ($F = 3.497$, $\% .001$)와 부모에 대한 태도 ($F = 9.486$, $\% .001$)이다.
5.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18.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강박증(15.8), 예민성(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1학년보다 입시불안 등으로 인해 상태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태불안은 정신건강과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건강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양호교사 및 담임교사들이 학년에 따른 상태불안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야 하며, 상태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고려하고 상태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써야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이들은 일생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발육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이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상을 표집한 반복적인 연구가 새행되어야 하겠다.
2. 청소년의 상태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유사실험을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3. 대학입시 불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종교, 형제수위, 신체적 건강상태, 부모의 생존여부, 경제상태, 보호자의 직업, 보호자의 교육정도,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이용하였으나 불안과 정신건강 사이에 작용하는 변수 보완이 필요하다.
4.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3대 장학방침 중의 하나인 건강교육의 중요성과 입시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교보건차원에서의 정부 및 학교당국의 건강대책이 요망된다.